

수 신 각 언론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발 신 사송 고리도룡농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 대표: 강호열  
(담당: 사공혜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3095-4025 gimyang@kfem.or.kr)

제 목 LH와 낙동강청, 양산시는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농의 서식처 마련에 진  
정성있게 나서라

날 짜 2022. 5. 24.(화)

## 성 명 서

○ LH양산사업단에서는 고리도룡농의 임시산란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과연 이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빠른 멸절을 통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19일 목요일~23일 월요일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 1. 학교 부지 내 유지 당부한 서식처의 훼손



그림 1> 학교 부지 내 유지 당부한 수로. 메워진 자리의 흙색이 짙은 것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그림 1의 먼쪽에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발견한 고리도룡농 유생.

그림1은 LH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부지이다. 3월 당시 이 지역은 물이 고여있는 수로였으며, 개구리와 고리도룡농이 산란을 한 상태였다. 학생들에게 멸종위기종이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다만 유지만을 당부하였던 장소이다. 그런데 5월 19일 목요일 오전, 모니터링 중 본 장소가 메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으로 보아도 흙의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제에 대한 LH의 답변은 “해당 장소에는 태영의 사무실이 있고, 임의로 메워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원복을 지시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 답변의 신뢰는 0에 수렴한다. 3월, 임시산란터를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는 LH관계자, (주)태영, (주)라나에코와 시민대책위가 동행하였다. 사무실 사용자가 임의로 저 넓은 지역에 흙을 가져다가 메웠다는 것은 (주)태영에서 직원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LH와 (주)태영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에 저 장소에 있던 개구리와 도롱뇽의 알과 유생은, LH의 답변을 따르자면 그대로 매몰되었다는 의미이다. 상황을 알고 구조·모니터링 용역업체에서 유생을 옮긴 다음 작업이 된 것이 아니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폐사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의 장소는 물이 흐르는 길이다보니 매운 후 다시 물이 차고 있다. 사진에서 먼 쪽에는 웅덩이가 남아있으며, 이 곳에서 고리도롱뇽의 유생이 서식함을 확인하였다.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LH와 공유하였다가 또 어떤 행위로 훼손을 할지 두려운 지경이다.

2. site1-3인근 집수정에서 고리도롱뇽 성체 고립, 산란된 알 폐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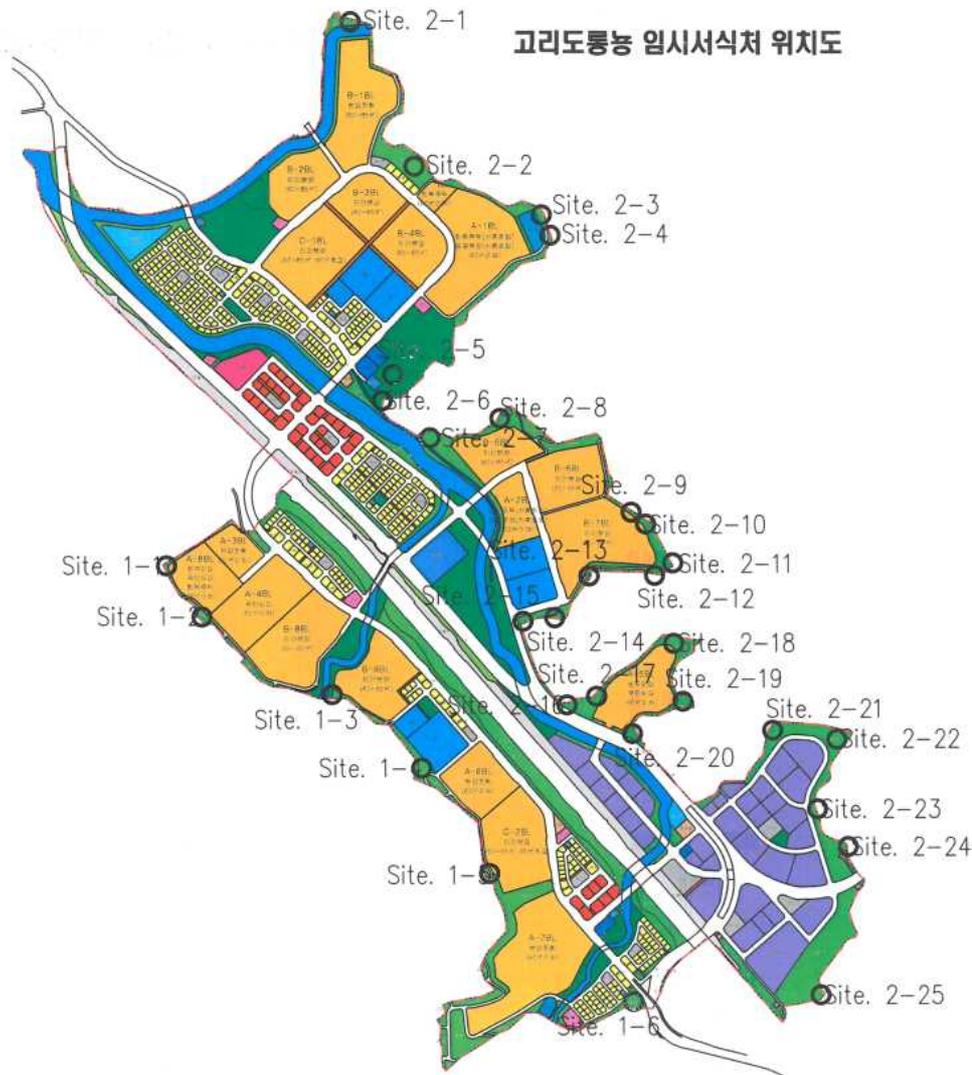


그림 3> 임시산란터 31개소의 위치.

임시산란터 1-3은 물이 고이지 않았다. 작년 외송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생을 구조하였으나, 현재 와이어로 묶여 있어 모니터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왼쪽의 낙차공은 1m 가량으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높이이며, 그 위쪽은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와이어로 바닥을 모두 묶어 놓았다. 1급수가 흐르며 멸종위기종이 거닐던 계곡은 이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저 특이하게 생긴 수로가 되었다.



그림 4> 외송천에서 상류를 바라보고 찍은 모습. 정면에 낙차공은 사람이 오르기에도 높은 높이. 아래쪽으로 돌을 묶은 와이어가 보임.



그림 5> 돌을 묶은 와이어를 가까이 찍은 사진. 수평 방향만이 아니라 수직으로 와이어끼리 묶어 고정한 것도 확인됨. 그림4의 상류부분

이곳 인근의 집수정을 확인한 결과, (사진상 외송천의 왼쪽 부분) 다수의 성체가 고립되어 있으며 산란된 알이 폐사된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구조한 성체는 70마리이며, 돌틈에 들어가 있어 구조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개체도 다수 있다. 알집 60정이 정도가 폐사하여 썩어가고 있는 것을 건져내었다.



그림 6> 임시산란터1-3 인근 집수정 내부에서 발견한 도롱뇽 알집과 개구리. 알집은 오염된 물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



그림 7> 임시산란터1-3 인근 집수정 내부, 그림6과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 개구리가 탈출하려 애쓰고 있다.

이 상황은 임시산란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성체들이 산란처를 찾아가다가 측구로 빠져 고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니터링과 구조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수정을 오버플로(overflow) 형태로 바꾸어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자문을 구한다고 해 놓고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장소조차 메워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금일 24일 오후에 현장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다는 요청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는 이미 일정이 있기에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학교 내 산란터가 사라진 내용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임시산란처를 둘러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당시 둘러볼 때 찍힌, 오버플로(overflow)형태의 산란터가 사라진 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사진의 응

덩이는 작년 2021년 많은 고리도롱뇽이 산란을 하고 무사히 성장하여 산으로 올라간 장소이다. 1월, 홍석환 교수는 형태 보존을 요청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LH, (주)태영, (주)라나 에코와 시민대책위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2월, 이 장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집수정으로 빠진 개체들은 김합수씨가 인근 암거에서 수차례 구조하였다.



그림 8> 12월 22일(수)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오전 LH 양산사승 공공주택지구 산업현장을 방문한 모습.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사진이며, 왼쪽에 보이는 형태가 대체식처의 안으로 요구 중인 오버플로우(overflow)형태이다. 합동모니터링 당시 홍석환 교수는 LH, (주)태영건설, (주)라나에코컨설턴트가 함께 한 자리에서 형태 보존을 당부하였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사라졌다.



그림 9> 그림8의 동일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곳에서 빠진 고리도롱뇽을 옆의 집수정에서 구조해낸다. 사진에 보이는 김합수 활동가(경남양서류보존회) 발 앞에 문제의 집수정이 보인다.

○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양산시의 각 부처는 LH에서 진행하는 일이므로 뒤로 물러나 있는 형세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과에서는 제재권한이 없다는 답변이며, 공원관리과에서는 완공 전에는 신도시지원팀의 소관이라고 한다. 외송천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형태가 된 문제에 대하여 하천건설과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양산시와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LH의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로 회피하는 사이, LH는 편리한 대로 시공을 하고 내년 7월에 완공 후 떠나면 그 피해는 양산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 때가 되어 양산시에서는 이미 완공이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을 것인가?

○ 한국토지택공사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이익을 위하여 못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가고 있다.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을 대하는 이 처참한 인식을 보자. LH에게 ESG 경영은 과연 무엇인가?

○ 기후위기가 코앞이라고들 하나, 우리의 관공서와 공기업은 다른 지구를 어딘가에 쟁겨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이대로 사송지구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고리도롱뇽은 수 년 내에 멸절할 것이다. 집수정으로 10%씩 빠져서 없어진다고 계산하여도 7년만에 개체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22년 후에는 10%도 남지 않게 된다. 그나마 이 수치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양서류가 살지 못하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는 인간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습지와 산림이다. 전체 훼손지역을 복원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습지라도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입주할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만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ESG 경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보호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양산시는 양산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일이며, 담당 공무원과 LH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리나라의 시민이고 지구에 살고 있기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2. 5. 24.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양산 기후위기비상행동